

참외 너마저...과채류 값 또 오른다

적은 일조량·병해에 출하량 감소...평년보다 딸기 33%·참외 21% 올라
전년 동월보다 대파 50%·배추 37% 상승...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늘어

3월에도 과일·채소 등 과채류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사과·배 등 과일류는 물론 이들의 대체품으로 꼽히는 딸기와 참외 등도 전년 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2024년 3월호' 보고서를 통해 토마토·딸기·참외 등 수요가 높은 과채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토마토(5kg)와 대추방울토마토(3kg) 도매가격은 각각 2만3000원과 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9%, 11.2% 오른,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년 도매가격보다도 각각 51.8%, 34.1%나 오른 가격이다. 평년 도매가격은 지난해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지난 5년간의 평균 가격을 가리

킨다.
신선과일류 중 평년대비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사과와 배, 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체 과일로 기대받고 있는 딸기와 참외 가격도 평년 대비 최대 3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KREI는 이달 딸기(2kg)와 참외(10kg) 도매가격을 각각 2만2000원과 8만 5000원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지난해 동월보다 각각 17.7%, 5.1% 올랐고, 평년보다는 33.1%, 20.9% 높은 가격이다.
특히 사과·배 등 신선과일들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은 만큼 딸기와 참외 등 3-5월 사이 계절인 과일들이 대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높은 가격이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KREI는 과채류의 가격 상승 주요 원인으로 출하량 감소를 꼽았다. 올해 초 생육기(1-2월)에 평

년보다 일조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선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는 올해 생육기에 내린 잦은 눈·비로 인해 일조량이 적어졌다.
이에 따라 생육이 지연되면서 수경 및 작과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병해까지 증가하면서 대추방울토마토의 경우 지난해 반입량이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딸기와 참외 출하량 역시 생육기 중 이상기후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각각 전년보다 4.1%, 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KREI는 또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신선과일류 외에도 다른 농산물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KREI는 보고서에서 대파(1kg)도 295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5% 오르고, 배추(10kg)은 36.8% 상승한 9500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그 외에도 파프리카(빨강), 애호박, 백다다기오이, 취정 오이 등도 대거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반려식물과 봄맞이 어떤가요?

'꽃멍'에 빠진 '식집사' 늘어...지구 환경 개선 효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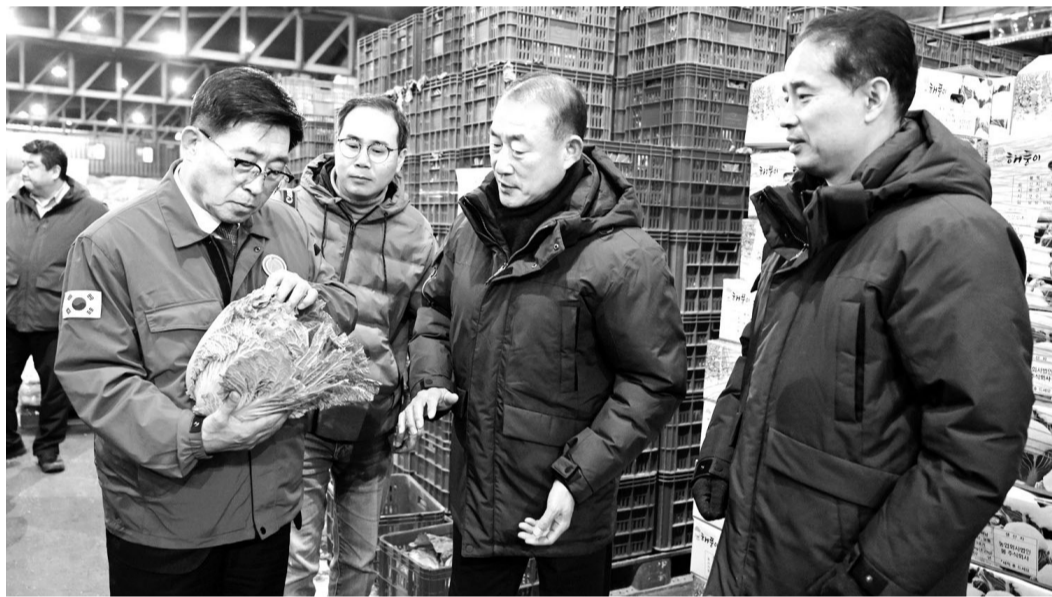
20여 년 전 초보 농부였던 시절, 밭에 씨앗을 심었다가 꽃이 너무 예뻐길래 한참을 두고 보다가 동네 어르신들의 지천을 들었던 적이 있다. 어르신들은 꽃으로 힐링하는 절없는 절은이를 보면서 격세지감과 함께 농사 환경 변화 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요즘 꽃이나 나무 등 좋아하는 식물을 애지중지 돌보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인기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과 같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 기르는 식물을 말하는 데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치유농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반려식물 키우기 열풍에 '식집사'(식물과 집사의 합성어)가 되기를 자청하는 이들이 늘었고, '꽃멍'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식물로 사무실을 꾸미는 오피스 가드닝도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다. '식물복지 선언문'까지 발표되면서 이제 반려식물 키우기는 어엿한 '반려의 문화'로 발전하게 됐다. 지자체도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에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 역시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생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에 따르면 국내 실내 농업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1200억 원에서 2026년 1조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나는 농사는 농사답게 가족은 가족처럼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택에서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가족과 같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마뜩잖게 여겨왔다. 이는 반려식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였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내 생각도 달라졌다. 현대인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을 돌보며 외로움을 덜고 정서적인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의 변화도 반려동물의 대안으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인기를 얻는데 한몫하는 것 같다.
이 말은 결국 식물을 기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환경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겪는 현대인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지 예뻐서 키우기보다는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삶의 위안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반려식물 키우기의 기원은 우리 선조들의 분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무를 분재에 심어 가꾸는 일을 분재라 하며 이 같은 행동을 분 가꾸기라고 하는데 반려식물 키우기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나 소사나무, 단풍나무 등 나무가 화초류 등으로 바뀐 정도다.
또 선비들의 고고한 취미 중 하나인 난초나 국화 키우기 역시 가꾸는 식물의 종류만 달랐지 개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선조들의 식물에 대한 천착이 수천 년을 면면히 이어온 것이다.
어쨌든 반려식물 키우기의 확산은 농업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녹색식물을 통해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 주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자신에게 적합한 반려 식물 하나 들이는 게 어떨까.
/bigkim@kwangju.co.kr

김춘진 aT 사장, 가락시장 방문...채소 수급 상황 점검

배추·양파 등 비축 물량 방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채소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김춘진 aT 사장 등은 지난 7일 서울시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채소류 시장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aT는 이날 겨울 무와 양파 경매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채소류 수급 현황을 살폈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3월은 겨울 작물의 수확이 종료되고, 봄 작물은 생육중인 단경기로 수급 불안 우려가 큰 시기이다"며 "정부가 비축한 농산물을 적기에 방출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협 전남본부, 제주서 전남 농산물 직거래 장터

'상큼애' 딸기·여수 감김치 등 20% 할인·유기농 쌀 증정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남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전남농산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직거래장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적극 활용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전남농협은 전남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상큼애'

딸기를 비롯해 사과, 방울토마토 등 제철 농산물 판매 부스와 여수 10마에 들어가는 갖김치, 김치버무림 부스 등 다양한 농산물 및 먹거리를 선보였다.
전남농협은 행사기간 중 시중 판매 가격 대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엔 영광 유기농 쌀(500g) 증정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큼애'를 통해 전남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전남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제주시에 널리 알리고 유통경로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밀키트·간편식 등 신성장 식품 산업 안전관리 방안 필요"

농경연, 관리 실태 분석

밀키트와 간편식, 무인식품 매장 등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식품산업과 관련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식

품시장의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농식품 배송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유통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신설 및 신선식품 배송박스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 위생·안전정보의 제공 및 표시 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우육과 돈육 등 신소재·신식품 분야에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소재 업체는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 세포배양육 안전관리방식은 소요 시간이 길어 국내에서는 시식·판매가 어려워,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